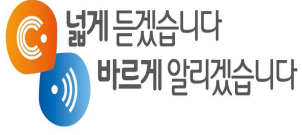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4. 6. 27(금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공간정보기획과	담당 자	• 과장 고영진, 사무관 백규영 • ☎ (044)201-3469, (044)201-3471
보 도 일 시	2014년 6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9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공간정보산업 선도할 핵심인재” 키운다

-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 지정, 특성화고 3개 선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공간정보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,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11개를 지정하고 특성화고 3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.
 - 특성화대학원은 IT, 문화,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
 - 특성화고등학교는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기초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·관리·가공할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DB/SW 기술 교육 중심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- 특성화대학원은 '14.5.30.~6.13. 까지 모집기간 동안 전국 12개 대학교가 응모하였으며 「공간정보 융·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핵심인재 양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
 - 강원대, 강릉원주대, 경북대, 남서울대, 동의대, 부경대, 서울시립대, 세종대, 안양대, 이화여대, 충남대가 지정되었다.

- 특성화고등학교는 5.30.~6.13.까지 모집 기간 동안 11개 고등학교가 응모하였고, 시·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「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 구성된 공간정보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
 - 서울디지털고등학교,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,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.

- 이번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에는 재학 중(1학기생에 한함)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장학생이 선발되면 1인당 연간 약 1200만 원의 지원금을 학생과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,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인프라 구축,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,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간 약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최근 ICT, 모바일 등 첨단 기술과 공간정보를 융·복합하는 국민행복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 -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간정보 융복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기초체력이 증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백규영 사무관(☎ 044-201-34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